

한국현대노년소설과 말년성*

— 황석영의 『해질 무렵』과 김훈의 『공터에서』를 중심으로

이 경 재**

요약

이 글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황석영의 『해질 무렵』과 김훈의 『공터에서』는 에드워드 사이드가 주장한 말년성과 맞닿아 있는 작품이다. 비록 이 때의 말년성이 예술적 기법의 차원으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정신적 차원에서 모두 균열과 모순, 파국과 죽음의 그림자를 짙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해질 무렵』에서 60대 중반에 접어든 주인공 박민우는 내적 균열과 모순, 그리고 통렬한

자기반성을 보여주며, 이것은 개발과 독재의 지난 시기에 대한 비판적 성찰 위에서 이루어진다. 『공터에서』는 1910년대생 마동수 부부의 말년과 죽음이 생물학적 차원에서만 적나라하게 그려진다. 또한 두 작품은 모두 노년의 삶을 젊은 세대와 연결시켜 다룬다는 공통점을 보여주고 있다. 황석영의 『해질 무렵』과 김훈의 『공터에서』는 자아와 세계 사이에서 발생하는 균열, 모순, 파국을 주요한 특징으로 하는 사이드의 말년성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준다. 이들 작품에서 노년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간주되는 조화, 화해, 포용, 관용, 종합 등은 그림자조차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황석영의 『해질 무렵』과 김훈의 『공터에서』는 적지 않은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의 노년소설 중에서 드물게도 “예술의 역사에서 말년의 작품은 파국이다.”라는 명제에 다가간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노년소설, 말년성, 황석영, 김훈, 파국, 죽음

* 이 논문은 제57회 한국현대소설학회 전국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이다. 유익한 토론을 해주신 전홍남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 숭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목차

1. 서론
2. 거대한 파국으로서의 말년성 - 황석영의 『해질 무렵』
 - 1) 존재의 근거를 상실한 노년
 - 2) 젊은 세대가 겪는 고통의 업보를 짊어진 노년
3. 생물학적 차원에서 그려진 말년성 - 김훈의 『공터에서』
 - 1) 말(馬)의 차원에 놓인 마동수(馬東守)의 말년과 죽음
 - 2) 의미화의 불가능성과 생물학적 답음
4. 결론

1. 서론

한국현대문학은 청춘의 양식이었다. 그것은 본받아야 할 전통의 미약함에서도 기인하는 것이지만, 한국의 모던이라는 것이 늘 새로운 출발의 모습이었던 것과 관련된다. 안정감과 거리가 먼 역동성이 한국현대문학을 이끌어온 기본 동력이었던 것이다. 우리 문학의 주요한 작품들도 청춘의 감각과 인식에 의하여 뒷받침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노년(문학)이 문제가 된다는 것은, 한국현대문학의 성숙과 발전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문학에서의 노년(성)은 인생의 노년기에 접어든 작가들의 최근작을 통해 그 모습이 비교적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지금까지 노년노설에 대한 연구는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1) 첫 번째는 노년소설의 기본적인 개념 규정을 둘러싼 이론적인 연구

1) 한국에서 노년소설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199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문학을 생각하는 모임에서 발간한 『한국문학에 나타난 노인의식』(백남문화사, 1996), 『한국노년문학연구 II』(국학자료원, 1998), 『노년문학연구 III』(푸른사상, 2001), 『한국노년문학연구 IV』(이회문화사, 2004) 등이 그 구체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후 노년소설에 대한 주목할 연구로는 최명숙의 『한국 현대 노년소설 연구』(경원대 박사논문, 2005), 류종렬의 『한국 현대 노년소설 연구사』(『한국문학논총』 50집, 한국문학회, 2008.12), 전홍남의 『한국 현대 노년소설 연구』(집문당, 2011), 최선호의 『현대 노년소설 연구』(아주대 박사논문, 2017), 김혜경의 『노년을 읽다』

이고, 다음으로는 개별 작가들의 구체적인 노년소설에 대한 연구이고, 마지막으로 죽음²⁾이나 성³⁾ 혹은 치매⁴⁾와 같이 노년소설에서 많이 다루어지는 테마에 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개별 작가들에 대한 연구이며, 이 때 주로 논의의 대상이 된 작가들은 박완서, 최일남, 김원일, 이청준, 홍상화, 문순태, 박범신 등이다.

지금까지 논의되어 온 노년소설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변정화는 노년의 인물이 주요인물로 등장할 것, 노인이 당면하는 문제와 갈등이 서사골격을 이룰 것, 노인만이 가질 수 있는 심리와 의식의 고유한 국면에 대한 천착이 있을 것 등을 노년소설의 주요한 조건으로 설정하고 있다.⁵⁾ 김윤식은 노년소설 대신 노인성 문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노인성 문학을 65세 이상의 작가가 쓴 작품을 가리키는 노인성 문학 (A) 형과 65세 이하의 작가가 노인성을 소재(주제)로 다루는 노인성 문학 (B) 형으로 나누었다.⁶⁾ 류종렬은 『한국 현대 노년소설 연구사』에서 이전까지의 노년소설에 대한 논의를 정리한 후에, “노년소설은 시대적으로는 1970년대 산업화시대 이후의 현대사회에서 본격적으로 생겨난 새로운 소설 유형으로, 노년의 작가가 생산한 소설이다. 그리고 소설의 내용적 측면에서 이야기의 중심 영역이 주로 노년의 삶을 다루고 있고, 서술의 측면에

(충남대출판문화원, 2017) 등을 들 수 있다.

- 2) 김보민, 『노년소설에 나타난 죽음인식과 대응』, 『인문학논총』 32집, 2013.6, 1-22면, 서정현, 『노년소설에 나타난 죽음 인식 연구』, 『인문사회21』, 9권 2호, 593-603면.
- 3) 김보민, 『노년소설에 나타난 노년의 성』, 『인문사회21』 8권 3호, 2017, 1005-1020면.
- 4) 엄미옥, 『고령화사회의 문학·치매를 다룬 소설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24권 1호, 2018, 285-321면.
- 5) 변정화, 『시간, 체험, 그리고 노년의 삶』, 『한국문학에 나타난 노인의식』, 문학을 생각하는 모임, 백남문화사, 1996, 176-177면. 또한 서사화의 방법을 ‘외부로부터의 묘사’와 ‘내부로부터의 묘사’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후 전개된 노년소설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 변정화의 규정에 의거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 6) 김윤식, 『한국 문학 속의 노인성 문학』, 『소설, 노년을 말하다』, 김윤식·김미현 엮음, 황금가지, 2004, 250-251면.

서 노인을 서술자이나 초점화자로 설정하여 서사화된 소설을 말한다.”⁷⁾고 규정하고 있다. 김미영은 “노년소설은 화자나 주인공이 노년의 인물이며, 노년의 삶을 노인의 감각과 시각에서 형상화한 소설”⁸⁾이라고 규정하였다. 성(性)의 문제, 관계성의 문제, 죽음의 문제라는 노년소설의 내용적 특징과 더불어 “노년기 작가들의 노년소설의 형상화 방식에서의 특징은 허구성의 약화와 교술성의 강화, 표면적 서사시간의 단축과 기억의 일상화”⁹⁾가 두드러진다는 형식적 특징도 밝히고 있다. 이상의 논의에서 노년소설의 특징으로 언급된 것을 정리하자면, 노년 인물이 주요인물로 등장한 것, 노년에 이른 작가가 창작한 것, 노인이 당면하는 문제와 갈등을 다룬 것, 노인만의 심리와 의식을 천착한 것, 노인을 서술자이나 초점화자로 설정한 것, 허구성이 약화되고 교술성이 강화된 것, 표면적 서사시간이 단축되고 기억이 일상화 된 것 등을 들 수 있다.

노년소설이 다루는 주제는, “한국 현대 노년소설은 1970년대에 노인 문제에 대한 고발과 풍자의 형태에서 출발해서, 점점 삶에 대한 탐색과 통찰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발전”¹⁰⁾해 왔다는 주장에서 알 수 있듯이,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노인이 겪는 고달픈 현실에 대한 고발에 치중한 작품들로서, 이러한 유형이 노년소설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노년만이 보여줄 수 있는 인생과 세상에 대한 원숙한 통찰을 보여주는 작품들이다. 이와 관련해 김병익은 박완서의 작품집 『친

7) 류종렬, 『한국 현대 노년소설 연구사』, 『한국문학논총』 50집, 2008.12, 502면. 노년소설의 유형으로는 가족해체와 이에 따른 세대의 비정함을 통해 노인의 소외된 삶을 다루는 부정적 측면의 소위 ‘노인문제’ 소설과, 노년의 원숙성과 지혜를 보여주거나 존재의 탐구와 죽음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다루는 긍정적 측면의 소설 두 가지로 나누고 있다.

8) 김미영, 『한국 노년기 작가들의 노년소설 연구』, 『어문론총』 64호, 2015, 215면. 덧붙여서 강의의 노년소설은 작가의 연령과 무관하지만, 협의의 그것은 작가가 작품을 창작할 당시의 연령을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위의 논문, 218면)

9) 위의 논문, 216면.

10) 이미란, 『한국 현대 노년소설의 변화 양상 연구-노년 담론의 성장과 작가 의식의 성숙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109집, 2016, 150면.

절한 복희씨』(문학과지성사, 2007)를 해설하면서, 노년문학은 “그냥 작가가 노년이라는 것, 혹은 단순히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노인이라는 것 이상의 것, 즉 노인이기에 가능한 원숙한 세계인식, 삶에 대한 중후한 감수성, 이것들에 따르는 지혜와 관용과 이해의 정서가 품어져 있는 작품 세계를 드러낸 경우”¹¹⁾로 규정하기도 하였다.

인생에 대한 원숙한 통찰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들이 통념적으로 생각하는 말년의 작품들이 지닌 특징에 해당한다. 말년의 작품에서 우리가 흔히 연상하는 것은 평생에 걸친 미적 실험과 노력의 완성 내지는 종합이다. 이러한 말년성은 렘브란트와 마티스, 바흐와 바그너에게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때 이들의 작품은 세계관적 차원에서의 성숙과 해결의 징표일 뿐만 아니라 기법적인 차원에서의 완성과 조화의 징표이기도 하다. 우리가 대가라고 부르는 예술가들의 후기 작품들에서 발견하는 것은 이러한 성숙함에서 오는 정신적이며 동시에 기법적인 차원의 안정감이라는 것이다. 노년의 특징으로 간주되는 조화, 화해, 포용, 관용, 종합의 몸짓은 그 안정감의 기원이자 결과이다.

그러나 에드워드 사이드는 이러한 통념과는 상반되는 말년성을 제시한다. 그에게 말년성은 망명의 형식으로서, 비타협, 난국, 풀리지 않은 모순을 드러낸다. 말년성의 특징을 갖는 예술가들은 모두 화해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아도르노가 그토록 강조한 “화해불가능성”, 즉 영원히 풀리지 않는 내적 대립을 사이드는 말년성 속에서 발견해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작품의 본질적 성격으로 하는 작품들에 ‘말년의 양식’이라는 명칭을 붙이고 있다.¹²⁾ 균열과 모순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파국과 죽음의 그림자를 드리우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말년성 속에는, 기존의 사회 질서는 물론이고 지금까지 자신의 예술을 지탱시켜 온 낯익은 예술적 기법과도 교감하기를 포기하고, 모순적이고 소외된 관계를 새롭게 맺

11) 김병익, 『험한 세상, 그리움으로 돌아가기』, 『친절한 복희씨』, 문학과지성사, 2007, 285면.

12) Edward W. Said, 『말년의 양식에 관하여』, 장호연 옮김, 마티, 2008, 10-226면.

으러는 날 선 실험의식이 깃들어 있다.

이 글에서 살펴보고려고 하는 황석영(1943-)의 『해질 무렵』과 김훈(1948-)의 『공터에서』는 에드워드 사이드가 주장한 말년성과 어느 정도 맞닿아 있는 작품이다.¹³⁾ 비록 이 때의 말년성이 예술적 기법의 차원으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정신적 차원에서 모두 균열과 모순, 파국과 죽음의 그림자를 짙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해질 무렵』에서 60대 중반에 접어든 주인공 박민우는 내적 균열과 모순, 그리고 통렬한 자기반성을 보여주며, 이것은 개발과 독재의 지난 시기에 대한 비판적 성찰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¹⁴⁾ 『공터에서』는 1910년대생 마동수 부부의 말년과 죽음을 통해 적나라한 죽음의 생물학적 실체를 보여주는 작품이다.¹⁵⁾ 또한 두 작품은 모두 노년의 삶을 젊은 세대와 연결시켜 다룬다는 점에서도 독특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¹⁶⁾ 이 글은 두 작품에 나타난 말년성의 양상과 그 구체적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
- 13) 『해질 무렵』과 『공터에서』는 기본적으로 노년소설이다.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노년소설의 특징으로는 노년 인물이 주요인물로 등장한 것, 노년에 이른 작가가 창작한 것, 노인이 당면하는 문제와 갈등을 다룬 것, 노인만의 심리와 의식을 천착한 것, 노인을 서술자이나 초점화자로 설정한 것, 허구성이 약화되고 교술성이 강화된 것, 표면적 서사시간이 단축되고 기억이 일상화 된 것 등을 들 수 있다. 『해질 무렵』과 『공터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노년소설의 기본적인 특징을 거의 모두 지니고 있다.
- 14) 물론 노인들이 겪은 역사적 현실들을 다룬 노년소설들이 완전히 부재한 것은 아니다. 변정화는 노년소설을 3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그 한 유형으로 “우리 시대의 노인들이 현대사의 전개과정에서 겪은 체험이 오늘의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의 삶을 유린하는 양상들을 그린 작품들”(변정화, 앞의 논문, 171-226면)을 꼽고 있다. 이들 작품은 노년에 대한 탐색의 추를 현상 너머의 깊은 근원예까지 내려, 과거와 오늘을 동시에 포착하여 그것을 통일된 유기적인 관계망 속에서 교차시키고 형상화하고 있기에 매우 중요한 유형이라고 보았다.
- 15) 김주연은 『공터에서』에서 마씨 부자(마동수, 마장세, 마차세)가 끝없는 떠돌음을 운명으로 하는 호모 비아토르(Homo Viator)의 정체성을 공유한다고 보고 있다. (김주연, 『김훈 소설에 나타난 호모 비아토르의 표상 연구』, 『현대소설연구』 71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8.9, 53-56면)
- 16) 김미영은 “지금까지의 한국노년소설은 빈곤노인들의 생활고, 손주 돌보기와 유산상속과 무관한 부분에서의 노인세대와 지식세대 간의 문화적 공감확대와 소통의 문제”(김미영, 앞의 논문, 241)는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황석영의 『해질무렵』은 바로 이와 관련한 한국 노년소설의 공백을 채워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2. 거대한 파국으로서의 말년성 - 황석영의 『해질 무렵』

1) 존재의 근거를 상실한 노년

황석영의 『해질 무렵』에는 여러 유형의 노인이 등장한다. 그 중에서 핵심인물은 이 소설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박민우이다.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는 박민우는 경제적으로 성공했지만 그동안의 삶에 대하여 심각한 회의를 느낀다. 박민우는 이미 획득한 삶의 지혜와 경험을 추체험하고 그것을 재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삶 전체를 부정하는 근본적인 균열에 봉착해 있다.

박민우의 삶은 출세와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것이었다.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인간적 삶을 전혀 돌보지 않은 것이기도 하다. “이미 오랜전에 사람과 세상은 믿을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박민우는 건물은 “돈과 권력”¹⁷⁾으로 짓는다고 생각한다. 박민우의 삶은 성공을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이 몸담은 공동체를 벗어나 보다 화려한 세계로 나아갔던 것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박민우는 경상도에 위치한 영산읍에서 태어난 후 상경하여 동대문 밖 산동네에 이삿집을 풀었다가, 나중에는 동네 형편이 더욱 안 좋은 달골로 이사를 간다. 박민우의 어머니는 달골시장에서 노점 좌판 권리를 얻어냈고, 나중에는 어묵 장사로 전업을 하여 생활의 안정을 찾는다. 이 달골은 박민우가 자신의 성공을 위해 배반한 고향이자 잃어버린 양심에 해당한다. 가난한 산동네인 달골 마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재명이 형과 그 가족들이다. 모두 초등학교를 다니다 만 재명이 형제는 열명이 넘는 아이들과 함께 구두땀이를 한다. 고등학교 이학년 때까지 박민우는 재명이 형제들과 자주 어울린다. 박민우는 달골 동네에서 두 명밖에 없는 고

17) 황석영, 『해질 무렵』, 문학동네, 2015, 16면. 앞으로 인용할 경우 본문중에 면수만 기록하기로 한다.

등학생이었으며, 다른 한 명의 고등학생은 “난장판 속에 던져진 한 마리 학”(62)처럼 보였던 국숫집 딸 차순아이다. 박민우와 차순아는 도서관에서 책도 빌려 보고 명작에 대해 얘기도 나누면서 친해진다.

달골에 살 때, 박민우의 가장 큰 욕망은 “어떻게든 이런 곳에서 벗어나야겠다”(50)는 것이다. 재명이 형제와 어울릴 때도, “이들과 오랫동안 같이 어울려 살 수는 없겠다는 생각”(66)을 하며, “대학입시 공부에 매진”(75)한다. 실제로 일류대학에 입학한 후에는 입주가정교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달골 마을을 벗어나게 된다. 이후 군대를 제대하고 유학을 가면서 박민우는 달골을 거의 완전히 잊어버리게 된다.¹⁸⁾

대학에 진학하며 달골을 떠난 후, 박민우와 달골 사람들의 관계는 일방적인 수혜자와 시혜자의 관계가 된다. 이 때 수혜자는 대학교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달골 사람들이 아니라 일류대학에 다니는 박민우이다. 박민우는 군 장성의 외아들을 가르치는 입주가정교사가 되는데, 이 군장성과의 관계는 달골 출신인 박민우가 중산층으로 올라서는 핵심적인 디딤돌 역할을 한다. 박민우가 서울에서 군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유학을 갈 수 있었던 것도, 외교관의 딸과 결혼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군장성(퇴임 후에는 국영기업체의 회장) 때문이다. 이 군장성과 좋은 인연을 쌓기 위해서, 당연히 그의 아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야 하고 이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구두땀이 두목 재명이 형이었던 것이다. 박민우는 처음 자신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장성의 외동아들을 달골의 재명이 형에게 데려감으로써, 자신이 원하던 대로 장성의 아들이 “믿고 따르는 형이자 속마음을 털어놓는 친구”(140)가 된다. 또한 차순아와의 관계에서도 박민우는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존재이다. 박민우가 군대에 간다는 소식을 들은 차순아가 박민우를 찾아 오자, 자신의 “이기심”(146)으로 순아를 술집과 여관으로 데려간다. 제대 후에 달골의 집에 들렀다가 우연히

18) 이전에 박민우는 그 동네를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으며, “차순아와 연결되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도 까마득히 잊고 있었을 것”(180)이라고 생각한다.

작은 회사의 경리로 일하는 순아를 만나서 경양식집에 갔을 때, 밥값을 계산하는 것도 차순아이다. 이후 박민우는 과렷치하게도 “그녀의 존재 자체가 내 삶과 무관하다고 생각”(152)한다.

달골을 떠나야 할 곳으로만 생각하며, 동시에 최대한 이용하기만 하는 박민우와 달리 차순아는 달골에 대한 따뜻한 온정을 평생 동안 간직한다. 이것은 차순아가 달골을 대표한다고도 할 수 있는 재명이 형과 결혼을 하고, 끝까지 달골에 머물려고 했던 것과는 연결된다.

『해질 무렵』에는 박민우의 부도덕함을 두드러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건축가 김기영도 등장한다. 말기암으로 투병중인 김기영은 박민우와는 판이한 인생을 살았으며, “우리는 수많은 이웃들을 왜곡된 욕망의 공간으로 몰아넣거나 내쫓았습니다. 건축이란 기억을 부수는 게 아니라 그 기억을 밀그림으로 사람들의 삶을 섬세하게 재조직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 같은 꿈을 이루어내는 일에 이미 많이 실패해버렸습니다.”(97)라는 말을 할 줄 아는 노년이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 김기영처럼 양심적인 노인은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이다. 박민우의 동년배들은 대부분 박민우와 비슷한 사고방식과 삶의 이력을 가지고 있다. 박민우의 친구인 교수 이영빈은 강북지구를 개발할 때, 날림집들이 빼곡히 들어섰던 산동네와 야트막한 뒷동산을 다 밀어버린 일을 이야기한다. 또한 한강디지털센터의 프로젝트를 박민우에게 맡긴 대동건설의 임회장은 비리 의혹으로 신문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임회장과 함께 일하는 최승권은 서울의 개화된 토박이 중산층 출신으로서 “한량들의 사교구락부처럼 보”(91)이는 문화재단의 책임자로 활동 중인데, 그 문화재단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언제나 양지를 지향”(91)한다는 것이다. 박민우는 “내가 살아온 길이나 최승권의 길이 별로 다르지 않다고도 생각(92)한다. 『해질 무렵』에서 박민우는 한국 사회의 중산층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박민우는 중산층의 기회주의적 속성 등을 날카롭게 파악하면서도, 자신 역시 “틀림없이 그들 중의 하나였

다.”(93)고 담담하게 고백하기도 한다. 이 작품에는 다음의 인용문들처럼, 역사에 대해 방관하였으며 자기 이익만 생각했던 중산층으로서의 이기적인 태도에 대한 박민우의 자기 반성이 빼곡하다.

젊었을 때에는 그렇게 냉소적으로 세상을 바라보진 않았다. 잘못된 것에 저항하는 이들을 이해하면서도 참아야 한다고 다짐하던 자제력을 통하여 나는 자신을 용서할 수 있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것은 일종의 습관적인 체념이 되었고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고 차갑게 자신과 주위를 바라보는 습성이 생겨났다. 그것을 성숙한 태도라고 여겼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습기뿐 가난에서 한숨 돌리게 되었던 때인 팔십년대를 거치면서 이 좌절과 체념은 일상이 되었고, 작은 상처에는 굳은살이 박아버렸다. 발가락의 티눈이 계속 불편하다면 어떻게든 뽑아내야 했는데, 이제는 몸의 일부분이 되어버렸다. 어찌다가 약간의 이질감이 양말 속에서 간신히 자각될 뿐.(112)

나로서는 형편없는 산동네의 가난을 벗어나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며, 그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의 내면은 좀더 복잡할 수밖에 없다. 나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갈등을 달래줄 무엇인가가 필요했다. (중략) 억압과 폭력으로 유지된 군사독재의 시기에 우리는 저 교회들에서, 혹은 백화점의 사치품을 소유하게 되는 것에서 위안을 얻었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온갖 미디어가 끊임없이 쏟아낸 ‘힘에 의한 정의’에 기대어 살았는지도 모르겠다. 결국은 너의 선택이 옳았다고 끊임없이 위무해주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여러 장치와 인물들이 필요했을 것이다. 나도 그런 것들 속에서 가까스로 안도하고 있던 하나의 작은 부속품이었다. (143-144)

심지어 1980년 광주에서 민주항쟁이 일어났을 때도, 이런 방관자적이며 자기 이익에 충실한 태도는 변함이 없었다. 결국 박민우와 그의 일당

은 파멸을 향해 간다. 대동건설의 임회장은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된다. 박민우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오랜 친구 윤병구 역시 검찰 출두를 일주일 남겨둔 상태에서 수술을 받고 혼수상태에 빠진다.¹⁹⁾ 박민우는 윤병구처럼 육체적으로 몰락하지는 않지만, 작품의 마지막에 “나는 길 한복판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몰라 망설이는 사람처럼 우두커니 서 있었다.”(196)고 표현될 만큼 정신적 몰락에 빠진 것으로 그려진다.²⁰⁾

2) 젊은 세대가 겪는 고통의 업보를 짊어진 노년

『해질 무렵』의 〈작가의 말〉에서 황석영은 전태일에 관한 다큐멘터리 이야기를 한다. 황석영은 이 다큐멘터리에서 전태일을 고용했던 사장이 젖은 눈으로 “그들의 형편을 전혀 몰랐다고, 그럴 줄 알았으면 좀더 잘해 줄 걸 그랬다”(192)고 말한 장면이 주목하면서, “지난 세대의 과거는 업보가 되어 젊은 세대의 현재를 이루었다.”(198)고 비감하게 말한다. 이러한 〈작가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작가는 노년 세대의 삶을 젊은 세대의 삶과 연관지어 바라보려는 분명한 의지를 지니고 있다. 그 결과 『해질 무렵』은 젊은 세대와 연결 지어 노년 세대를 바라보는 독특한 특성을 보여주며, 이러한 특징은 구성방식에서도 확인된다. 『해질 무렵』의 홀수장

19) 윤병구는 박민우와 같은 동네에서 태어나 함께 자랐으며 똑같이 건설의 영역에서 물질적 이득만을 취했다. 박민우의 뒷집에 살던 동급생 윤병구와 박민우는 마흔 가까운 나이가 되었을 때 다시 만난다. 이 때 박민우는 현산건축에서 일했으며, 윤병구는 중견 건설회사인 영남건설을 막 인수한 상황이었다. 윤병구는 초등학교 5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고 군대에 갔다가 중장비 기술 자격증을 땀고, 제대 이후에는 농촌 근대화 사업에 뛰어들었다. 영산읍도 달골과 마찬가지로 무참하게 파괴된 것으로 형상화된다. 박민우는 영산읍을 둘러보며 “남은 사람보다 떠난 사람이 더 많은 이 고장의 개화한 모습을 이해할 수 없었다. 모텔에서 상가와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이삼층의 상자 같은 시멘트 건물이 들어선 읍내는 전보다 더욱 황량해 보였다.”(21)고 느낀다.

20) 이 무렵 박민우는 구글 지도에서 말년을 보낼 주택의 부지를 찾으며, “뭇자리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168)을 하기도 한다.

(1,3,5,7,9장)에서는 60대의 노인인 박민우가 초점화자 ‘나’로 등장하고, 짝수장(2,4,6,8,10장)에서는 20대 후반의 정우희가 초점화자 ‘나’로 등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성방식은 자연스럽게 60대 박민우의 삶과 20대 정우희의 삶을 함께 바라보도록 한다.

스물 아홉 살인 정우희는 예술대학을 나온 초짜 극작가 겸 연출가이다. 각색료는 커녕 연출비도 받지 못하며, 편의점에서 밤 열시부터 아침 여덟시까지 근무를 한다. 정우희가 사는 고퍡이 냄새로 가득한 어두컴컴한 다가구 주택의 반지하방은, 그녀가 처한 상황을 압축해서 보여준다. 박민우의 “나는 수도권 변두리의 숙소를 돌아다니면서 나와 비슷한 또래들을 수없이 만났다.”(37)는 말처럼, 정우희는 우리 시대 젊은이의 한 전형으로 창조되었다. 이것은 박민우가 노년 세대 일반을 대표하는 것에 대응된다. 정우희로 대표되는 이 시대 젊은이들은 “밀림 속의 맹수들 틈에서 잔뜩 움츠린 채 눈치만 발달한 작은 포유류”(37)에 비유된다.

정우희와 함께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젊은이로 등장하는 이가 바로 김민우이다. 정우희는 피자집에서 알바를 할 때, 배달일을 하는 김민우를 만난다. 정우희가 피자집에서 부당하게 해고되었을 때, 김민우는 가게를 그만두면서까지 정우희를 도와주고 이를 계기로 둘은 친밀한 사이가 된다. 정우희의 반지하방이 침수되었을 때, 정우희는 열네평짜리 김민우의 집에서 며칠간 신세를 진다. 이 때 김민우의 어머니인 차순아와도 친해진다.²¹⁾

김민우는 홀어머니 밑에서 전문대학을 나왔으며, 이십대 초반부터 팔년 동안 건설사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했다. 그는 해고되기 직전에 철거지역에서 용역을 관리하는 과장의 보조였다. 달동네 주민들은 새로 세운다

21) 차순아는 재명이 형과 결혼하지만, 재명이 형은 삼청교육대에 끌려갔다가 정신적으로 완전히 망가진 상태로 돌아온다. 이후 재명이 형은 도박판을 차렸고 약에도 손대기 시작했다가 범죄단체 조직으로 15년 형을 받는다. 그 사이 딸아이가 죽고, 재명과의 인연은 끝난다. 이후 차순아가 월부 책 판매원과 인연을 맺어 낳은 아들이 바로 김민우이다.

는 아파트에 입주할 능력도 없고, 더 이상 갈 데도 없다. 그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항하지만 철거용역 앞에서 단 몇 분 만에 무너지고 만다. 지적 장애아가 포클레인에 맞아 사망하는 철거현장에 있던 김민우는 본사로 가서 한 달쯤 대기하다가 해고된다.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다가 끔찍한 폭력에 연루되고, 결국에는 그 피해를 온전히 떠맡게 된 것이다. 이후에도 아르바이트를 세 개씩 뛰던 김민우는 결국 충주 부근의 강변에서 자살한 시체로 발견된다.²²⁾

이후 차순아도 뇌졸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정우희는 차순아를 가장하여 박민우에게 이메일을 보낸다. 차순아가 자신의 인생을 정리한 수기를, 정우희가 짧게 간추려서 첨부파일로 함께 보내는 것이다. 박민우는 차순아의 인생이 담긴 첨부파일을 읽다가 차순아의 아들인 김민우가 개발지 철거반원으로 일하다가 지난해 겨울에 자살했다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내게는 너무도 익숙한 장면이 눈앞에서 생생히 재현되는 듯했다. 가슴이 답답해져왔다. 우리가 뭔가 보이지 않는 끈으로 가날프게 연결되어 있었던 것만 같은 묘한 기분이 들었다.”(176)고 느낀다. 똑같은 개발지에서 박민우가 자신의 이득을 극대화하는 동안, 김민우는 의도치 않은 폭력에 휘말리고 결국에는 목숨까지 버려야 했던 것이다. 김민우가 평생 박민우가 이득만을 취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문제를 온전히 떠안았으며, 박민우가 이용만 하고 외면한 차순아의 아들이라는 사실로 인해 박민우의 업보는 더욱 부각된다.

차순아의 이름으로 보내진 첨부파일의 마지막은 “나는 그애가 우리처럼 어렵고 가난해도 행복했으면 했지요. 그런데 우리가 뭘 잘못된 걸까요. 왜 우리 애들을 이렇게 만든 걸까요.” (177)로 끝난다. 차순아의 글을

22) 김민우의 자살 소식을 듣고, 정우희가 “나도 어느 날 내 방에서 스프리 잠들듯이 죽고 싶다는 생각을 수도 없이 해봤는걸.”(161)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김민우와 정우희 세대에게 자살은 매우 특별한 일만은 아니다. 실제로 김민우는 자신을 포함한 6명과 동반자살을 한다.

읽으며, 박민우는 “까닭 없이 그녀가 나를 질책하고 있는 것”(177)처럼 느끼고, 이어서 박민우는 자신의 몸이 점점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그리고는 하반신이 사라진 자신의 상반신이 “넌 누구야”(178)라고 묻는다. 스스로에게 던진 이 질문은, 박민우가 자신을 지탱해 오던 삶의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했음을 보여준다.

황석영의 『해질 무렵』은 달골과 과거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필사의 질주극을 벌였던 박민우가, 말년에 이르러 달골과 과거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암시하며 끝난다. 정우희는 차순아를 가장하여 박민우에게 만날 것을 제안한다. 정우희는 예전에 달골이었던 약속장소에 나타난 박민우를 보며, “과거를 향하여 앉아 있”(192)는 박민우를 모른 채하고 약속장소에서 나온다. 박민우가 과거를 향하는 것은 자신이 이용만 하고 돌보지 않은 달골과 차순아를 기억하는 일인 동시에, “그의 과거가 나의 현재라는 생각”(192)에서 알 수 있듯이, 정우희의 못다한 이야기를 마저 듣는 일이기도 하다. 박민우의 평생은 달골이라는 빈촌을 벗어나 좀더 화려한 세계를 향해 가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양심이나 도덕은 거추장스러운 짐에 불과했으며, 타인의 고통과 눈물은 고려의 대상도 아니었다. 그러나 삶의 말년에 이르러 박민우는 그러한 삶을 근본적인 차원에서 되돌아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이 결국에는 거대한 파국에 지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된 것이다.

3. 생물학적 차원에서 그려진 말년성 - 김훈의 『공터에서』

1) 말(馬)의 차원에 놓인 마동수(馬東守)의 말년과 죽음

『공터에서』에서 마동수는 1910년 경술생 개띠로 서울에서 태어나 소년기를 보내고, 만주의 길림, 장춘, 상해를 떠돌았으며 해방 후에 서울로 돌

아와 6.25전쟁과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시대를 살고, 69세로 죽는다.

이 작품의 주서사에서 마동수는 죽기 직전의 모습부터 등장하며, 철저히 생물학적인 차원에서만 그려진다. “마동수의 생애에 특기할 만한 것은 없다.”²³⁾는 말은 서술자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다. 이 작품에서 강박적으로 강조되는 것은 늙고 병들고 죽는 자연적인 과정이다. 그 과정이 매우 정밀하게 묘사되는데, 몇 가지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휴가 나온 마차세 상병이 자리를 지키면서 아버지의 밑을 살폈고 대소변을 받아냈다. 마차세는 환자의 배에 관을 꽂고 복수(腹水)를 빼내는 법을 간병인한테 배웠다. 암세포가 녹아 나와서 복수는 걸쭉했다. 마차세는 식염수로 관을 닦았다. 12월 20일 저녁 마차세가 외출한 사이에 마동수는 빈방에서 죽었다.

마지막 날숨이 빠져나갈 때 마동수의 다리가 오그라졌다. 마동수는 모로 누워서 꼬부리고 죽었다. (9)

마차세는 아버지 마동수의 밑을 물수건으로 닦아내고 탈취제를 뿌렸다. (27)

병자의 성기는 까맣게 퇴색해서 늘어졌고 흰 터럭 몇 올이 남아 있었다. 사타구니 언저리에는 검버섯이 돌아났고 고환 껍질에 습기가 차 있었다. (28)

마동수 스스로도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떠한 의미부여도 거부한다. 그것은 영적인 차원으로까지 이어져서 아내 이도순이 신부를 보내 종부성사(終傳聖事)를 받게 하지만, 마동수는 이를 완강하게 거부한다. 이처럼 인간적인 차원의 모든 의미로부터 단절된 노년을 보내 마동수가 맞이한 죽

23) 김훈, 『공터에서』, 해냄, 2017, 8면. 앞으로 인용할 경우 본문중에 면수만 기록하기로 한다.

음도 “사체는 입을 벌렸고 턱에 침이 말라 있었다.”(14)에서처럼 사물화된 것으로 묘사된다.

아버지가 상징적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획득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자식과의 관계를 통해서이다. 마동수의 말년이 생물학적인 차원으로 축소되는 것과 어울리게 마동수는 자신의 자식들인 마장세와 마차세로부터 어떠한 의미화의 대상도 되지 못한다.

『공터에서』의 대부분은 초점화자인 마차세의 시선을 통해 아버지 마동수의 삶이 사실은 동물적인 것에 불과했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마차세는 아버지 마동수의 삶이 제대로 애도될 수 없는 삶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마동수를 시립 공원묘지에 묻고 내려오면서 아버지의 혼백이 떠나지 않고 서울 청진동의 여인숙에 머물 것을 걱정하거나²⁴⁾ 상희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아버지는 죽어서도 저승으로 가지 않고 서울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싶어.”(57)라고 염려하는 것에서 알 수 있다. 마차세는 아버지가 유령이 될 것을 염려하는데, 유령이란 본래 실제적 죽음과 상징적 죽음 사이의 간극에서 발생하는 것이다.²⁵⁾ 마차세는 아버지의 삶에 특별한 의미나 가치를 부여하는 작업, 즉 상징적 죽음을 선사하는 일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이전에도 두어 달에 한 번꼴로 집에 오는 아버지를 보며, 마차세는 “그 턱 밑 살이, 물으로 끌어올려진 물고기의 아가미”(132)같다고 느낀다. 마차세는 마동수가 “이 세상에 아무런 토대를 놓지 못하고 발디딜 곳 없이

24) 마차세는 시립 공원묘지에 아버지를 묻고 내려오는 길에, “아버지가 몸은 땅에 묻혀도 그 혼백이 떠나지 않고 서울 청진동의 어느 여인숙에 머물면서 산 사람들의 생애에 개입”(52)할 것을 염려하는 것이다.

25) 이러한 생각은 슬라보예 지젝의 견해를 따른 것이다. 세익스피어의 『햄릿』에서 햄릿의 아버지는 실제계에서는 죽었지만 유령이 되어 끊임없이 나타난다. 그는 살해당함으로써 상징적 죽음을 도둑맞았기에 유령으로 계속 나타나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상징적 부체가 청산된 후에야, 즉 햄릿이 클로디어스를 죽여 자신의 상징적 위치가 분명히 드러난 후에야 비로소 완전히 죽는다. (Tony Myers, 『누가 슬라보예 지젝을 미워하는가』, 박정수 옮김, 엘피, 2005, 147-149면)

걸돌고 헤매다가 갔다.”(185)고 생각하며, 아내 박상희에게도 “아버지는 거점이 없었어. 발 디딜 곳 말이야.”(197)라고 말한다. 마차세는 밥이 익는 냄비 속에서도 “세상으로부터 걸돌고 헤매다가 죽은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하중을 피해서 멀리 나간 형을 생각”(210)한다.

마동수의 장남인 마장세는 아예 아버지와의 대면 자체를 거부한다. 마장세는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아버지의 죽음을 자신으로부터 격리시켰으며 결국 아버지의 장례식에도 오지 않는다. 장남인 마장세는 아예 아버지의 일을 입에 담지 않으며, 아버지의 흔적이 배어 있는 일상의 흔적 쪽으로는 가까이 가려 하지 않는다. 마장세는 “한국에 가면 아버지처럼 될 거 같아.”(139)서 한국을 무서워하며 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이다. 마차세도 아내 박상희에게 “형은 아버지의 흔적이 싫어서 한국에 안 오는 거야.”(184)라고 말한다.

아버지 마동수를 멀리 하는 것은 마차세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박상희가 임신했다는 말을 했을 때 보이는 다음의 반응에서 아버지와 거리를 두려고 하는 마차세의 마음이 잘 드러난다.

마차세는 멀리서 다가오는 아버지의 환영을 느꼈다. 봉두난발의 사내가, 고등어 한 손을 들고 절뚝거리면서 이쪽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아버지, 오지 마세요, 여기는 아버지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는 산 사람들 동네입니다……’라고 마차세는 꿈속에서 가위눌리듯이 속으로 중얼거렸다. (274)

보통의 경우 한 남성이 아이를 낳으면, 그 남성의 아버지는 자연스럽게 할아버지로서의 새로운 위치를 획득하게 된다. 그러나 곧 아버지가 될 마차세는 마동수가 할아버지로서 자신의 삶에 개입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마장세는 말할 것도 없고, 마차세 역시 마동수를 “제사 지내지 않”(348)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²⁶⁾

주목할 것은 마동수 자신도 생물학적인 아버지 이상의 특별한 존재가 되기를 거부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아들들과의 관계를 거부하는 것에서 드러난다. 죽음을 며칠 앞둔 마동수는 휴가를 나와 자신을 돌보는 마차세를 불편해하며, “나가봐”(27, 29)라는 말을 반복한다. 이 말은 마차세에게 “거역할 수 없는 명령”(29)으로 들릴 정도로 진심이 담겨 있다. 마동수는 아들을 불편해하고 어려워하는 것이다. 끝내 마동수는 임종하는 사람 없이 “모로 누워서 혼자서 죽”(14)는다. 이처럼 『공터에서』에서 마동수의 말년과 죽음은 아무런 의미도 찾을 수 없는 단지 생물학적인 차원에서만 그려진다.

마동수보다 네 살 어린 아내 이도순(李道順)의 삶도 자연적인 차원을 벗어나지 않는다. 이도순의 말년도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과정에 초점이 맞추어 그려질 뿐이다. 이도순은 흥남 철수 당시 남편과 젓먹이 아이를 남겨두고 혼자만 월남한 후에 마동수와 결혼한다. 마동수가 죽은 후에 이도순의 몸은 빠르게 무너지고, 관절염, 불면증, 치매 등을 앓으며 요양원에서 8년을 더 산다. 어머니가 죽었다는 전화를 받고 마차세가 “어머니는 오래전에 죽었고 그 소식이 뒤늦게 도착한 것 같았다.”(305)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도순은 상징적으로는 이미 죽고 실재적으로만 살아 있는 존재였다고도 말할 수 있다. 마동수가 실재적으로는 죽고 상징적으로는 죽지 않아서 유령이 될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면, 이도순은 상징적으로는 죽고 실재적으로만 죽지 않은 유령이었던 것이다.

마동수와 이도순은 이 작품에서 어린이 공원에서 아이들을 태우는 늙은 말에 비유된다. 마차세는 아내 박상희에게 늙은 말에 대해 이야기하며

26) 마차세를 몰아 세워서 마동수와 이도순의 제사를 지내게 하는 것은 마차세의 아내 박상희이다. 이와 관련해 “『공터에서』의 박상희는 대지모신(大地母神)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남성성의 결핍을 채워주고, 상처를 끌어안는 상보적 여성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상에 가깝습니다.”(김훈·김주언 대담, 『내 인생의 글쓰기』, 『김훈을 읽는다』, 삼인, 2020, 327면)라는 김주언의 발언은 주목할만하다.

“말이 늙어 보였어. 말없이 걷더군. 끝도 없이 걸었어. 수백 바퀴를.”(323) 이라며 이어서 말을 하려다가 말문이 막힌다. “말을 말하려니까 말이 잘 나오지 않았”(323)던 것이다. 말(言)로 표현이 안 되는 말(馬)과 같은 삶, 이것은 어떠한 의미화나 상징화외도 무관하게 생존의 차원에만 매몰되었던 마동수와 이도순의 삶을 압축적으로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2) 의미화의 불가능성과 생물학적 닳음

『공터에서』는 이처럼 철저히 마동수와 이도순의 말년을 생물학적인 차원에서만 그리고 있다.²⁷⁾ 이러한 차원에서는 어떠한 의미나 가치 혹은 안정도 기대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는 마동수에게 특별한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려는 또 다른 힘이 작용한다. 그것은 크게 마동수의 기억과 상해 시절의 동지(同志)들을 통해 이루어진다.

마동수가 죽기 6개월 전부터, “지워져버린 먼 기억이 갑자기 되살아나서 몸을 옥죄”(60)이다. 마동수는 간병인이 떠먹여 주는 미음을 받아먹으며, 열 살 때의 남산경찰서와 그 뒷골목 새벽 해장국집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이다. 남산경찰서에서는 마동수의 친형 마남수와 다른 조선인들이 끌려가 일본인들에게 매를 맞았고, 새벽 해장국집에서는 풀려난 조선인들이 배를 채우고는 했다. “그때 세상은 무섭고, 달아날 수 없는 곳”(65)이었으며, 결국 마동수는 중국으로 간다. 마동수는 상해에서 한의학을 가르치

27) 마동수의 이처럼 동물화 된 삶은 코제브가 말한 역사 이후의 역사철학적 상황과 관련된 것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 코제브는 “세계사, 즉 인간들과 인간이 자연과의 교호 작용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 작용의 역사란 전투적 주인과 노동하는 노예 사이의 상호 작용의 역사이다. 그러므로 역사는 주인과 노예 사이의 구별 대립이 해소되는 순간 정지”(Alexandre Kojève, 『역사와 현실변증법』, 실현영 옮김, 한빛, 1981, 81면)한다고 주장한다. 인정투쟁을 그만두고 생존을 위한 노동밖에 하지 않게 된 순간 역사는 정지한다는 것이다. 코제브는 역사의 종언 이후 인간이 취할 삶의 방식을 두 가지로 보았다. 일본적 스노비즘의 세계와 미국식 동물화의 세계가 그것이다. 한때 혁명운동에도 가담했던 마동수는 해방과 분단 전쟁 등을 겪으며, 철저한 동물화의 세계에 감금된 것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

는 의과대학에 입학하지만 낙제를 거듭하다가 퇴학당한다. 상해에서 마동수는 “혁명 동지”(178)인 하춘파의 하숙방에 얹혀 지내면서 외항선 갑판을 닦거나 상해 시내 전차 검표원 노릇을 한다. 하춘파는 “혁명 무력은 핵심부에 집중되어 있다가 전위부로 산개돼야 한다.”(73)거나, 이 세상이 삭막하고 따분한 까닭은 “소유와 결핍,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시간 속에 축적되고 공간 속으로 확산되기 때문”(77)이라고 말하는 주의자형 인물이다. 여러 개의 혐의로 수배 상태인 하춘파는 살인도 주저하지 않는다. 하춘파의 영향력 아래서 마동수는 한인 망명자들의 2세, 3세 자녀들에게 배달학원에서 한국어를 가르친다. 이러한 경력은 마동수의 삶을 동물적인 차원을 뛰어넘어 역사적인 존재로 부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한다.

이러한 마동수의 활동경력은 아버지의 친구들에 의해 더욱 부각된다. 아버지의 장례식에는 마동수의 “상해 시절 ‘동지(同志)’라는 문상객 세명”(44)이 참석한다. 아버지의 친구들은 영정 사진으로 쓸 사진도 가져오는데, 거기에 찍힌 마동수는 한껏 멋을 낸 젊은이로서 마차세에게는 너무나 낯설다. 특히 마동수의 “혁명 동지”(178)라고 자칭하는 하춘파는 중고 서적상을 경영하며 사회주의 계통의 서적과 문서를 모아서 지식인 사회에 공급해 오다 2년간 옥살이를 한 경력도 있다. 초상에 나타난 아버지의 친구들은 상해, 여순, 대련, 장춘, 길림을 떠돌던 시절에 살해되었거나 실종된 친구들, 해방 후에 버마, 타이, 이란, 사우디아라비아로 가버린 뒤 소식이 끊어진 친구들, 동지로 위장해서 수많은 동지들을 일경(日警)에 밀고하고 자신도 살해당한 밀정들과 무수한 배신자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들은 결국 마동수의 죽음을 신문에 알려서 조간신문에 마동수에 대한 1단 기사가 실리도록 한다. 기사에는 “고인이 1930년대의 상해에서 반식민 반제국의 선전 활동에 종사했고 임정의 외곽 조직에서 공연 단체를 조직해서 민족자결의 문예운동을 전개했다”(51-52)는 내용이 담겨 있다. 마차세가 “아버지의 죽음이 신문 기사가 된다는 사실”(52)을 도저히 믿을

수 없을 만큼, 그것은 사물화 된 마동수의 모습과는 다른 것이다.

그러나 『공터에서』는 마동수를 사회적·역사적 존재로 만들려는 이러한 힘을 무화시키는 힘이 더욱 강력하게 작동한다. 마동수는 중일전쟁으로 상해를 떠난 이후 해방될 때까지 만주에 머물며 아편에 절어 지낸다. 마동수의 행동은 독립운동과 관련된다고보다는 젊음의 객기와 무모함의 국제적 버전으로 묘사되는 측면이 강한 것이다.²⁸⁾ 해방이 되어 서울에 돌아온 마동수는 6.25 기간에도 특별한 정치적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 인민군이 서울로 진주했을 때는 “스탈린 만세”(109)를 부르고, 국군이 서울에 들어왔을 때는 국군을 향해 “만세”(112)를 부르는 식이다. 이후 부산으로 피난을 간 마동수는 시립 병원 빨래꾼으로 생계를 이어가며, 같은 일을 하던 이도순을 만나 결혼한 이후에는 두어달에 한번씩 집에 들르는 무중력 상태의 삶을 살아갈 뿐이다.

하춘파를 비롯한 친구들 역시 마동수의 삶에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는 역할을 하지만, 결국에는 마동수의 말년이 지닌 동물성과 사물성을 부각시키는 역할을 더욱 크게 한다. 그들은 마동수의 입관을 할 때, 술에 취해서는 고꾸라질 듯이 비틀거린다. 하춘파는 마차세의 결혼식에 나타나서는 마차세에게 차비를 챙겨달라 하고, 결국 마차세가 준 20만원과 돼지머리와 인절미를 챙겨 사라진다. 이후에도 하춘파는 마차세 앞에 몇 번인가 나타나 용돈을 받아 간다. 이처럼 비루한 이들의 모습을 통해 마동수의 젊은 정치적 실천이 지닌 의미도 퇴색되어 버린다.

결국 마동수의 행동은 독립운동과 관련된다고보다는 젊음의 객기와 무모함의 국제적 버전으로 묘사되는 측면이 강하며, 하춘파를 비롯한 마동수 친구들의 비루한 모습으로 인해 마동수의 말년이 지닌 동물성과 사물성은 오히려 크게 부각된다. 이로 인해 마동수가 두 아들에게 남겨준 것

28) 이와 관련해 김주연은 『공터에서』의 마동수와 관련해 “독립운동가의 무용담이나 후일담 대신에 다만 어느 마이너리티의 지우고 싶은 흑역사를 보는 것 같습니다.”(위의 글, 292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은 단지 ‘생물학적 닮음’ 뿐인 것으로 표현된다. 마차세는 이발소 거울에 비친 마동수와 자신의 얼굴이 똑같아서 흠칫 놀라고, 마차세의 아내인 박상희는 결혼식장에서 “마장세와 마차세는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닮아 있”(175)는 것에 섬칫 놀란다.²⁹⁾ 박상희는 마동수의 젊은 시절 사진을 보며, “두 이들과 똑같”(262)다고 여긴다. 마차세도 “우리 형제는 모두 아버지 닮았어.”(184)라며 그 닮음을 인정한다. 결국 마동수의 말년이 철저하게 생물학적 차원에만 머물렀기에, 마동수는 두 아들에게 유전적 유사성만을 남겨줄 수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4. 결론

지금까지 한국의 노년소설은 노인이 겪는 고달픈 현실을 고발하거나 노년만이 보여줄 수 있는 인생과 세상에 대한 원숙한 통찰을 보여주는 작품들이 대부분이었다. 인생과 세상에 대한 원숙한 통찰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들이 통념적으로 생각하는 말년의 작품들이 지닌 특징에 해당한다. 대가라고 불리는 예술가들의 후기 작품에서 발견되는 것은 성숙함에서 오는 정신적이며 동시에 기법적인 차원의 안정감이라고 여겨지는 것이다. 그러나 에드워드 사이드는 이러한 통념과는 상반되는 말년성을 제시한다. 그에게 말년성은 망명의 형식으로서, 비타협, 난국, 풀리지 않은 모순을 드러낸다. 균열과 모순은 물론이고, 파국과 죽음의 그림자를 드리우는 것이야말로 말년성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황석영의 『해질 무렵』과 김훈의 『공터에서』는 에드워드 사이드가 주장한 말년성과 어느 정도 맞닿아 있는 작품이다. 황석영의 『해질 무렵』의 주인공인 박민우는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며 경제적으로는 성공했지만 그

29) 마차세의 친구이자 마장세의 사업파트너인 오장춘은 마장세를 처음 만났을 때, “너무 닮은 외모 때문에 마장세가 마차세의 형이라는 것을 알아낸다.

동안의 삶에 대하여 심각한 회의를 느낀다. 박민우의 삶은 출세와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것이었으며, 성공을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이 몸담은 공동체를 벗어나 보다 화려한 세계로 나아갔던 것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결국 박민우를 비롯해 자신의 이익만을 앞세우던 노년 세대는 파멸을 향해 간다. 또한 이 작품은 젊은 세대와 연결 지어 노년 세대를 바라본다는 독특한 고유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특징은 구성 방식에서도 확인된다. 이 작품에서는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 몸부림 치다가 철거현장의 끔찍한 폭력에 연루되어 자살하는 김민우의 삶을 통하여, 이 시대 젊은이들의 삶이 얼마나 혹독한 것인지가 강렬하게 드러난다. 박민우는 삶의 만년에 이르러 자신의 지난 삶을 근본적인 차원에서 되돌아 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이 결국에는 거대한 파국에 지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된다.

김훈의 『공터에서』의 주서사에서 마동수는 죽기 직전의 모습부터 등장하며, 철저히 생물학적인 차원에서만 그려진다. 이 작품에서 강박적으로 강조되는 것은 늙고 병들고 죽는 과정이다. 이처럼 인간적인 차원의 모든 의미로부터 단절된 노년을 보낸 마동수가 맞이한 죽음 역시도 사물화 된 것으로 묘사된다. 아버지가 상징적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획득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자식과의 관계를 통해서이다. 마동수의 말년이 생물학적인 차원으로 축소되는 것과 어울리게 마동수는 자신의 자식들인 마장세와 마차세로부터 어떠한 의미화의 대상도 되지 못한다. 『공터에서』의 대부분은 초점화자인 마차세의 시선을 통해 아버지 마동수의 삶이 사실은 동물적인 것에 불과했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작품에서는 마동수의 기억과 상해 시절의 동지(同志)들을 통해 마동수에게 특별한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려는 또 다른 힘이 작용한다. 그러나 『공터에서』는 마동수를 사회적·역사적 존재로 만들려는 이러한 힘을 무화시키는 힘이 더욱 강력하게 작동한다. 결국 마동수의 말년이 생물학적 차원에 머문 것처럼, 결국 마동수가 두 아들에게 남겨준 것은 '생물학적 다텔' 뿐이다.

이처럼 황석영의 『해질 무렵』과 김훈의 『공터에서』는 자아와 세계 사이에서 발생하는 균열, 모순, 파국, 나아가 죽음의 그림자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노년소설들이다. 이것은 기존의 노년소설과는 차원이 다른 문학적 영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기존 노년소설들이 노인이 처한 비극적 현실을 고발하거나 노인만의 성숙한 삶의 지혜를 알려주는 것과는 매우 다른 문제의식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황석영의 『해질 무렵』과 김훈의 『공터에서』는 정신적인 차원에서 에드워드 사이드가 말한 말년성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는 새로운 모습의 한국노년소설이다.

| 참고문헌 |

1. 기초자료

- 황석영, 『해질 무렵』, 문학동네, 2015.
 김 훈, 『공터에서』, 해냄, 2017.

2. 단행본

- 김혜경, 『노년을 읽다』, 충남대출판문화원, 2017.
 문학을 생각하는 모임, 『한국문학에 나타난 노인의식』, 백남문화사, 1996.
 _____, 『한국노년문학연구 II』, 국학자료원, 1998
 _____, 『노년문학연구 III』, 푸른사상, 2001.
 _____, 『한국노년문학연구 IV』, 이회문화사, 2004.
 이경재, 『현장에서 바라본 문학의 의미』, 소명출판, 2013.
 진홍남, 『한국 현대 노년소설 연구』, 집문당, 2011.
 최명숙, 『21세기에 만난 한국노년소설 연구』, 푸른사상, 2014.
 최선호, 『한국 현대 노년소설 연구』, 국학자료원, 2019.
 Kojeve, Alexandre, 『역사와 현실변증법』, 설현영 옮김, 한빛, 1981.
 Myers, Tony, 『누가 슬라보예 지젝을 미워하는가』, 박정수 옮김, 엘피, 2005.
 Said, Edward W., 『말년의 양식에 관하여』, 장호연 옮김, 마티, 2008.

3. 논문

- 김미영, 『한국 노년기 작가들의 노년소설 연구』, 『어문논총』 64호, 2015, 215-241면.
 김병익, 『험한 세상, 그리움으로 돌아가기』, 『친절한 복희씨』, 문학과지성사, 2007, 285면.
 김보민, 『노년소설에 나타난 죽음인식과 대응』, 『인문학논총』 32집, 2013.6, 1-22면.
 _____, 『노년소설에 나타난 노년의 성』, 『인문사회21』 8권 3호, 2017, 1005-1020면.
 김윤식, 『한국 문학 속의 노인성 문학』, 『소설, 노년을 말하다』, 김윤식·김미현 엮음, 황금가지, 2004, 250-251면.
 김주연, 『김훈 소설에 나타난 호모 비아토르의 표상 연구』, 『현대소설연구』 71호, 2018.9, 53-56면.
 김훈·김주연, 『내 인생의 글쓰기』, 『김훈을 읽는다』, 삼인, 2020, 327면.
 류종렬, 『한국 현대 노년소설사 연구』, 『한국문학논총』 50집, 한국문학회, 2008.12, 502면.

- 변정화, 『시간, 체험, 그리고 노년의 삶』, 『한국문학에 나타난 노인의식』, 문학을 생각하는 모임, 백남문화사, 1996, 176-177면.
- 서정현, 『노년소설에 나타난 죽음 인식 연구』, 『인문사회21』, 9권 2호, 593-603면.
- 엄미옥, 『고령화사회의 문학·치매를 다룬 소설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24권 1호, 2018, 285-321면.
- 이미란, 『한국 현대 노년소설의 변화 양상 연구-노년 담론의 성장과 작가 의식의 성숙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109집, 2016, 150면.

<Abstract>

Korean Contemporary Old Age Novels and Lateness

Lee, Kyung-Jae

Hwang Seok-young's novel and Kim Hoon's novel are works that are somewhat in line with Edward Said's claim of lateness. Although the end-of-life at this time does not lead to the level of artistic technique, it shows the shadows of cracks and contradictions, destruction and death, all at the mental level. The main character Park Min-woo, who entered his mid-60s around, shows internal cracks, contradictions, and intense self-reflection, which is done on a critical reflection of the past years of development and dictatorship. The late years and deaths of Ma Dong-soo and his wife, who were born in the 1910s, are depicted only in terms of a stark biological entity. In addition, both works show common ground that life in old age is linked to the younger generation. Hwang Seok-young's "During the Eclipse" and Kim Hoon's "In the vacant lot" show images close to the end of the year. Such endearment comes as it casts the shadows of cracks, contradictions, catastrophe, and even death that arise between self and the world. Harmony, reconciliation, inclusion, tolerance, and synthesis, which are considered common features of old age, are something that even shadows cannot be found. Hwang Seok-young's "During the Eclipse" and Kim Hoon's "In the vacant lot" are rare among old Korean novels with a considerable history that have approached the proposition, "The work of the later years in the history of art is a

catastrophe.”

Key words: Old Age Novel, Lateness, Hwang Seok-young, Kim Hoon,
Catastrophe, Death

투 고 일 : 2020년 8월 30일

심 사 일 : 2020년 8월 31일-9월 10일

게재확정일 : 2020년 9월 12일

수정마감일 : 2020년 9월 26일